Youngeun News

동행

4월

2024년 452호

YOUNGEUN BASIC 2021-2025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2024영은 INNOVATE 혁신하다

올 백 데 이

4. 21 주일 | 오전 8:30~오후 4:30 | KBS 아레나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INNOVATE 영은,혁신하다

“가시 조심”

다들 아시죠?

가시가 선인장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모두 아실 거예요.

말의 가시가 더 아프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겠군요.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8~9)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2호 / 2024. 4. 7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광일 장로
편 집 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 장 김창원 집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가시 조심"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알고 알고 믿고**
기도의 승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 장미애 전도사
08 **동행**
사랑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에게 / 허승우 목사
10 **신앙의 유산**
평생 오직 주님만 알고 사셨던 김찬규 은퇴장로 / 김명희 기자
12 **웹진 동행**
2024년 상반기 권찰회 개강예배 / 박영희 권사
3월 늘푸른학교의 특별한 수업 / 백정란 권사 (늘푸른학교 교사)
권사로서의 소명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을까? / 권영옥 권사
영은문화아카데미 블록세미나 〈메디타치오〉 / 김지연 (청년부)
16 **영은소식**
부활절 칸타타,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 / 서상희 안수집사(음영부 차장)
교인들의 '맛집' 책임자 성재현 쉐프 / 김명희 기자
태국 치앙라이 한인교회 선교센터 헌당식 /
이승훈 장로(해외선교부 부장)
4월 2일 시작된 〈화요 직장인 예배〉 / 김명희 기자
또 하나의 선교지 그리고 축복 / 종현덕 목사
영은 올백데이
23 **선교지에서 온 편지**
소망이 샘솟는 이야기 / 전우현 · 박영란 선교사
26 **삐딱하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난 아니지만. / 이숙경 기자
27 **녹색교회 : 녹색계명**
녹색 제2계명 : 환경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28 **교회안내**
부활절 칸타타 – 장엄미사 "하나님께 영광" / 연합찬양대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22:39~46)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검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눅 22:36)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영적 능력의 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능력의 칼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십니다.

1)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과정입니다.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눅 22: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빠지다'로 번역된 단어는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종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즉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떨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혹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나를 만족시킬 모든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목의 정욕'으로 눈이 멀게 하는 유혹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기적 생각은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만들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약한 인간인 우리는 언제든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거칠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과 죄에 굴복당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의 칼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2)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눅 22:42)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임박한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연약한 인성(人性)의 모습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구속 사역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순조롭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것이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심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꺾어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였듯이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삶은 기도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주의 뜻이 내 뜻과 맞아야 되는데'라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미 주신 주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달라도 응답은 응답입니다. 그리

고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다중에 보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의 칼을 갖추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 커도는 위로를 위한 과정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눅 22:45)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피곤함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슬픔'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마 26:41)

제자들은 지금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슬픔으로 인하여 육신이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마음 깊이 헤아리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드러낸 제자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책망보다 위로를 통해 제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능력의 칼을 소유하도록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로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위로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칼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 영적 능력의 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능력의 칼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사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대충대충 기도하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능력의 칼이 있습니다.

또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능력의 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능력의 칼이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글 | **장미애** 전도사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신앙을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세속적인 생각과 삶, 근심 등의 파괴적인 홍수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의 위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다니엘은 기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가치를 안다면 기도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은혜로운 결과들을 얻는 것은 대체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고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쏟는 노력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 앞에서 게으름이나 유약함은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물론 영적 싸움은 혹독하고 고되며 힘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함을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는 기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담대한 기도에 따라오는 행복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삶의 승리를 입증해 줍니다. 기도와 삶은 따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3:22).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만큼 삶도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기도 또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교회 창립 64주년 특집

사랑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에게

– 독일에서 보내는 편지 –



글 | **허승우** 목사
(독일 뉘른베르크-에얼랑엔 한인교회)

사랑하는 영은교회 형제자매님들께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일 뉘른베르크에 사는 허승우입니다. 1996년에 독일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와서 뉘른베르크에서 지금까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작은 목사입니다.

故 고일호 목사님께서 뮌헨한인교회 담임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에얼랑엔에서 협동목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 목사님을 추모하며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올 2월에 독일에서 김명희 권사님을 뵈었는데 그때 제가 말실수를 하여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교회보다 한국교회가 더 위기이고 위태롭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와 있어 정확한 고국 교회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용감하고 무책임하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 사랑이 많은 독일교회



2023년 6월에 뉘른베르크에서 30만 명의 독일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4박 5일 동안 모였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독일은 아직까지는 기독교 국가인 것이 확실합니다. 인구 8,000만 명 가운데 2024년 현재 4,000만 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2,000만 명이 개신교인이고, 2,000만 명이 가톨릭교회 성도입니다. 북쪽 동해바다(Ostsee)에서부터 남쪽 알프스 산골짜기까지 개신교회 하나, 가톨릭교회 하나가 사이좋게 세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건축할 곳이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문화적으로 기독교화된 나라입니다. 독일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안에서 시작하여 교회 안에서 삶을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한&독 연합예배



한&독 교회학교 찬양

태생적 문화가 된 독일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입니다. 독일교회, 독일 성도들, 독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우 친절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냉정해 보이지만 약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입니다.

사랑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려는 교회가 독일교회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의 증거가 "오직 사랑(solus amor)"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인격적이지 않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게 성서를 사랑하고,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그 진리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 믿음이 좋은 한국교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전도하고, 성경공부하고 기도드리며 찬양과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올해로 선교 14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교회들이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 어린 교회(Junge Kirche)입니다. 반대로 유럽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교회는 힘이 넘칩니다. 빨리 성장합니다. 학습 능력도 무한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인 것은 어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공유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유럽에서는 이 작업을 이미 오래 전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 강국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선교 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전도가 마치 자기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그 방법과 태도가 인격적이지 않고 사랑이 없다고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독일교회와 믿음이 좋은 한국 교회가 서로 함께 만나 사랑하고 믿고, 믿고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와 일치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두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며 멀리 독일에서 사랑하는 고국의 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주님 오신지 2024년 3월 28일 성목요일에

허승우 드림



청년들이 신앙공동체를 방문하여 연주회를 가졌다.
(앞줄 우로 두 번째 한채영, 영은교회 유학생)

신앙의 유산 : 김찬규 은퇴장로

평생 오직 주님만 알고 사셨던 김찬규 은퇴장로



김찬규 은퇴장로

1960년 4월 24일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06번지 故 이창호 장로(당시 집사) 댁에서 남 23명, 여 35명이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영은교회가 올해로 64살이 된다. 창립교인 68명 중 현재 남아 있는 분은 7명(김동호, 김찬규 은퇴장로, 송미자, 이수진, 박복선, 이순희, 한영기 은퇴권사)이다. 그중 한 분이 김찬규 은퇴장로다. 올해 97살이신 김찬규 장로는 영은교회 창립 때부터 64년간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부흥시킨 교회의 원로다.

■ 영은교회 창립교인이 되다

김찬규 장로는 1928년 5월 14일(음)에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과 함께 의주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장로님이 23살 때 6.25 전쟁이 발발해 강원도로 피난 오게 됐다. 이후 부산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영등포로 상경했다. 그리고 대한모방에 취직했고, 검사과 과장으로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당시 대한모방은 동아염직과 함께 영은교회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였다. 두 회사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고, 그중에 영은교회의 초창기 교인들이 있었다. 김찬규 장로도 이때 영은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장로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대한모방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당일교회에 다녔는데, 2~3년이 지난 어느 날 당일교회 기존교인과 뒤늦게 합류한 우리(북한 피난민들)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싫어했어요. 할 수 없이 우리는 당일교회를 나와서 양남교회로 예배 처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도 우리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로 인해 자기들만의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 영도중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아염직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교회가 없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동아염직과 대한모방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뜻깊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없어서 벌어진 슬픈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1960년 4월 24일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초기 교회 이름은 '영중교회'였다(1960.7.3.). 같은 해 12월 4일에 교회 대지 200평(양평동 3가 8-3)을 매입하면서 교회 이름을 '영신교회'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영은교회'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61년 4월 2일부터다.



딸 영옥의 제1회 영은유치원 졸업식
(뒤로 제1대 박조준 담임목사)

■ 아무탈 없이 성장한 영은교회가 자랑스럽다

29살의 젊은 청년, 김찬규 장로는 영은교회에서 이팔순 권사를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권사님은 작년에 별세). 장로님은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첫째 병옥은 목사 사모가 되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결혼 직전까지 영은교회 대예배 반주자로 봉사했다. 둘째 영옥은 인천 계산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으며, 영은유치원 제1회 졸업생이다. 셋째 김성천 목사는 현재 대전 인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넷째 혜옥은 미국 헌츠빌 한인교회에서 지휘와 반주로, 남편은 찬양 인도자로 헌신하고 있다. 막내 명옥은 광명교회 찬양대 지휘자이고, 남편은 인천 송월교회 지휘자이다. 현재 5남매는 음악가와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 · 봉사하며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이어 가고 있다.

김찬규 장로는 1978년에 영은교회 초대 안수집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80년에 장로에 임직 되었다. 장로님은 교회 초기, 제1대 박조준 담임목사(1960.11.29. 부임) 사택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일을 떠올렸다. 제2대 정인영 담임목사(1967.4.5. 부임) 때는 교회 앞에 있던 사택(한옥)에서 목사님 가정이 연탄가스로 곤란을 겪었던 일을 회상하였다. 장로님에게는 즐거웠던 추억도 있다. 제3대 장일균 담임목사(1973.11.27. 부임)와 물놀이 가서 냉면 먹으며 재밌는 시간을 가졌던 일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 중 하나는 브라질 선교다. 제5대 허남기 담임목사(1985.9.1. 부임)의 재임 시절, 우리 교회가 브라질에 개척교회를 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선교부장이었던 장로님이 허 목사님과 함께 브라질 개척교회를 방문했다.

김찬규 장로님은 영은교회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6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역대 목사님들을 모시고 '주무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성장한 것이다. 교회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당회원들이 '주무 장로'(당시 김창경, 김섭인, 라기성 장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했다는 것이다.


김찬규 장로와 딸 영옥

■ 아버지는 여전히 청년같아요

김찬규 장로가 교회 일선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97살의 장로님이 매 주일 영은교회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한다. 주일마다 인천에서 택시로 교회에 오는데, 장로님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택시 기사가 매 주일 아침에 집 앞에서 장로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97살인데, 손가락 하나 아픈 곳이 없어요!" 장로님은 지금도 집에서 새벽기도를 드린다. 매일 성경읽고, 찬송부르고, 기도한다. "아버지는 집에서 항상 공부하신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 한문, 일본어로 쓰고 계시죠. 아버지는 여전히 청년 같아요. 한평생 오직 주님만 알고 사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딸 영옥 집사가 들려주는 '아버지 사랑'이다.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웹진동행 : 3월 핫 클릭

2024년 상반기 권찰회 개강예배

– "올백심방과 올백구역예배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길" –



글 | **박영희** 권사(권찰회 회장)

할렐루야!

2024년도 권찰회 회장직을 맡은 박영희 권사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30분에 교회 본당에서 권찰회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은교회 권찰회는 6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반장, 구역장, 권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권찰회에 속한 모든 권찰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개강예배 때 이승구 담임 목사님은 "틈에 서서"라는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권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에 (직장 등으로) 구역예배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 한해도 다시 한번 '올백심방'과 '올백구역예배'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영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권찰회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구	교구 담당목사	권찰회 임원
1	최광주 목사	회장_박영희 권사
2	한진구 목사	부회장_박정희 권사
3	신요한 목사	총무_이정숙 권사
4	정성훈 목사	서기_이금자 권사
5	이준희 목사	회계_오현주 권사
6	박대원 목사	부회계_오흥희 권사



권찰회 개강예배



권찰회 임원

웹진동행 : 3월 포커스 1

3월 늘푸른학교의 특별한 수업

– 천연화장품 올인원 미백 에센스 DIY –



글 | **백정란** 권사(늘푸른학교 교사)

달력상 봄은 진작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꽃샘추위로 쌀쌀합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는 3월의 마지막 목요일, 늘푸른학교(구, 노인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는 늘푸른학교 학생들은 130명 이상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멀리 강화, 인천, 김포, 수원 등 새벽부터 길을 나선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없이 교사들이 한진구 목사님의 제안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겨울 동안 푸석푸석했던 피부를 촉촉하고 하얗게 가꾸어줄 천연화장품, 스킨과 로션, 크림을 하나로 하는 천연 올인원 미백 에센스 만들기 수업을 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140여명의 학생들이 예배 후 7층 식당에서 9가지 천연재료를 순서에 맞게 계량하고 희석하며 실수 없이 전문가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천연화장품 올인원 에센스를 이용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백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로 피부톤을 어둡게 만드는 주범인 멜라닌의 이동성을 감소시켜 피부를 맑고 밝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입니다.

2. 보습과 탄력

피지와 유사한 구조인 호호바 오일은 피부 침투성이 좋아 피부 속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노화와 외부환경으로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은 메마르고 당기는 속건조를 해결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탄력있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 재료로는 병풀워터, 알로에베라겔, 올리브리퀴드, 라벤더에센셜오일, 1.2헥산디올을 넣었습니다.

늘푸른학교 학생들의 맑고 촉촉한 피부를 기대하며 순한 천연재료 피부에 유해 한 성분 하나 없이 최고의 원료로 만든 올인원 미백 에센스는 온 가족이 다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문제성 피부 아토피와 여드름, 지성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가의 명품화장품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늘푸른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이뻐지셨을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맑고 투명한 얼굴로 만나요~~ 동수일





※ 더 많은 교회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의 웹진 동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동행 : 3월 포커스 2

권사로서의 소명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을까?

– 2024년 권사회 봄 수련회를 마치고 –



글 | **권영옥** 권사



권사회 봄 수련회가 3월 12일 비전홀에서 열렸다. 권사수련회는 봄과 가을 두 차례 개최되는데, 봄 수련회는 말씀과 기도회로, 가을 수련회는 야외예배로 진행된다.

수련회 시작 20분 전부터 준비찬양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회장 안영순 권사의 인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승구 담임목사님께서 조용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셀프 리더십"에 대하여 주옥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다.

교회 리더로서 나를 점검하는 '셀프 리더십'은 나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권사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과연 이 소명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걸까? '소명'의 정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격은 갖추고 있을까? 이승구 목사님은 인격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원칙이라도 잘 지켜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말한다.

권사수련회 예배를 통해 나에게 소명, 열정, 인격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으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15년 전 권사임직을 받았다. 나 자신도 분명 주어진 소명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인격도 갖추려 노력하며 모든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와 주어진 환경 탓을 내세우며 변명하기 바쁜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예배 후 깔끔하고 맛있는 한식부페로 즐거운 점심시간을 끝냈다. 이어서 개그맨 김영철씨의 표정을 닮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레크레이션 전문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진행으로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모두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시간에 선후배 간의 허그 시간이 있었다. 같은 소명을 가진 권사님들과의 귀한 인연은 형제애 같은 사랑으로 다가왔다. 나를 비롯한 많은 권사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안아 주었다.



정성훈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가 시작되고, 최광선 은퇴 집사님의 은혜로운 색소폰 연주가 감동을 선사했다. 정성훈 목사님께서 "마리아, 기도의 어머니" 란 제하의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했다.

웹진동행 : 3월 포커스 3

영은문화아카데미 블록세미나 〈메디타치오〉

– 3월 1~2일, 필그림 하우스 –



글 | **김지연** (청년부)

오 주여, 성경이 너무 재미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나의 나이브한 기도마저 귀 기울이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낀 1박 2일의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을 테마로, 마태복음 묵상과 침묵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떠난 청년부 영은문화아카데미 블록세미나 〈메디타치오〉. 삼일절 아침, 15명의 청년부 참석자들은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출발했다. 등록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새신자인 나는 모르는 얼굴이 많았지만, 조용히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서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모두가 내 형제였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 속에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의 다른 길로 경거망동 돌아다니며 오만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나를 가만히 기다리고 다시 조용히 좁은 길로 인도하셨다. 기도하기 전부터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탁월한 세상을 보여주신다.

너무 많은 연결과 소통의 시대. 뿌예진 거울을 닦듯, 세상의 입김으로 흐려진 시야를 걷어내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휴대폰도 끄고 최대한 침묵을 지키며 고요하게 묵상을 하기로 했다.

'천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좁은 길을 거쳐 영원한 안식처인 천성에 도착하는



영은의 천로역정 순례자들

이야기다. 세상 길을 걸으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만 좋은 동행인 신실과 소망을 만나 혼란을 겪을 때마다 끊임없이 서로를 다독이며 좁은 길을 계속 걷는다. 결국, 크리스천은 천성에 도착한다. 필그림 하우스의 순례길을 걸어보며 천로역정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었다.

첫날 밤과 이튿날 오전에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한 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성경을 읽을 시간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었다. 각자의 속도로 읽고, 아직 다 읽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었다가, 각자 사유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나누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즐겨 읽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잘되지 않았던 어린 지난날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처럼 느껴져서 감격스러웠다. 교회에 이렇게 각자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신실'로 채워질 앞으로의 나의 순례길이 기대됐다.



부활절 칸타타,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

글 | **서상희** 안수집사 (음영부 차장)

3월 31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영은교회 연합찬양대는 부활절 칸타타 구노의 「장엄미사」를 연주했다. 교회음악의 걸작으로 꼽히는 구노의 「장엄미사」는 전 세계 교회음악 합창단에 의해 가장 많이 불리는 합창곡이다. 19세기 프랑스 음악 최고의 음악이라 격찬을 받은 구노의 「장엄미사」는 독창 (Sop, Ten, Bas), 혼성합창, 오르간, 관현악 반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적 세련미와 화려한 품격 속에 서정적 선율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신앙심이 깊었던 구노는 슈르피스 신학교에 다니면서 오페라 등 세속음악의 작곡 활동을 접고 신학 공부에만 매진하던 때가 있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다. 그가 모든 공부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작곡한 첫 곡이 바로 이 「장엄미사」다. 구노 자신은 이 곡의 창작 과정에서 "음악으로써 심오하고 끝이 없는 신앙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고 고백하였다.

「장엄미사」는 총 8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건한 신앙적 내면을 음악 색채와 감각적인 소리로 표현하였다. 불쌍히 여기소서, 높은 곳에 영광, 신앙고백, 기도(봉헌송), 거룩하시다, 복 있도다, 하나님의 어린양, 구원의 주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여 분간 합창과 솔로, 연주곡으로 진행된다. 구노의 음악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수성과 명쾌한 선율과 부드럽고 투명한 색채감을 가지고 대중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작품의 모습을 곳곳에 담고 있다.

구노의 장엄미사를 통해 부활의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부활절 칸타타의 지휘로 섬겨준 오성환 집사와 반주로 수고해 준 류보배 집사, 임단비 집사와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해 준 영은실내악단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1월 중순부터 칸타타를 준비하며 부활절 찬양을 통해 영은의 모든 성도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부활절 칸타타에 100여 명의 연합찬양대와 소프라노 솔리스트 최유진 자매와 4부 지휘자 배승현 집사의 베이스 솔로와 테너 최요셉 군의 목소리와 연합된 웅장함은 실내악단의 선율과 어우러져 부활절 찬양이 영은교회에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한겨울부터 시작된 부활절 찬양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과 주관 찬양대의 총무, 대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찬양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음영부가 되기를 소망하여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교인들의 '맛점' 책임자 성재현 쉐프

오늘 예배를 마치고 7층 교회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예전처럼 점심식사를 위해 온 성도들로 붐볐다. 배식을 위해 늘어선 긴 줄도 여전하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부엌에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어야 할 봉사부 권사들이 모두 배식대에서 성도들의 배식을 돕고 있었다. 식당 주방에는 20대 젊은 쉐프가 커다란 솥가마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봉사부 부장 안영기 장로는 2024년부터는 교회식당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로 운영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스무 명의 권사들이 한 팀이 돼 식당 봉사를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성재현 쉐프를 중심으로 5~6명의 유급인원이 주일 점심식사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교역자 및 교회직원을 위해 식당운영을 한다. 성 쉐프가 다양한 메뉴로 교역자들의 점심식사를 매일 책임지게 된 것이다. 늘푸른학교와 교회행사의 식사 준비도 성 쉐프의 몫이다.

성재현 쉐프는 성기수 안수집사의 장남으로, 영은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은의 꿈나무다. 올해 나이 23살, 청년 쉐프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혼자서 TV에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성 쉐프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직업학교 조리과 1년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일반고등학교와 직업학교를 병행하면서 뜨거운 고3을 보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고픈 요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성 쉐프는 조리과를 졸업하면서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 3개를 손에 거머쥘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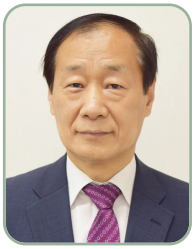

성재현 쉐프

성 쉐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학교에서 추천해준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군대에 입대했다. 주님의 인도인가? 그는 논산 훈련소에서 3천 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제대 후에는 골프리조트 내 바베큐 하우스에서 일했다. 그러다 영은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다. 교회라는 곳이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해보자!"란 마음으로 입사했다. 3천 명분의 조리 경험이 있어서 영은교회 성도를 위한 1000명분의 조리는 두렵지 않다. 3개월 견습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정식으로 교회 주방의 쉐프가 됐다. 앞으로 꿈이 무엇인가? 묻는 말에 한결같이 "저는 음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겸손한 말뿐이다.

〈글 : 김명희 기자〉

식당배식은 13:00시까지만 합니다. 식사 후에는 즉시 식기 반납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봉사부 부장 안영기 장로 –

태국 치앙라이 한인교회 선교센터 헌당식



글 | **이승훈** 장로 (해외선교부 부장)

태국 치앙라이 한인교회 선교센터 헌당예배가 3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에 있었다. 영은교회에서는 해외선교부 부장 이승훈 장로가 헌당예배에 참석하였다. 치앙라이 한인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는 노석희&길영순 선교사는 치앙라이에서 2014년 1월 5일에 첫 한인예배를 드렸고, 2014년 3월 20일에는 치앙라이 한인교민들을 초청하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세 번에 걸쳐 이사하였고, 2024년 3월 9일 교회 성전을 새로 짓고 교회 창립 10년 만에 헌당식을 하게 되었다.



헌당예배를 마치고 빠마이족과 현지사역자들, 파송선교사들이 함께 했다.

치앙라이 한인교회는 주태 한국장로교 선교부(KRPM)에 소속된 한인교회다. 당시 KRPM 대표였던 정도연 선교사가 "노석희&길영순 선교사는 나이가 많아 선교사로 와서 태국어를 하기에 힘들 것이니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태국에서 한국어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였으나 노석희&길영순 선교사는 기꺼이 한인교회 사역을 맡아주셨다. 두 선교사는 치앙라이 한인교회 사역과 함께 매주 산족을 찾아가 과일과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면서 밤새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치앙라이로 돌아오는 사역을 10년여간 계속하고 있다.

1. 치앙라이 한인교회와 영은장학숙의 건축 과정

치앙라이 한인교회 선교센터는 지난해 5월, 영은교회의 한 성도의 기도와 후원으로 땅을 매입하여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선교센터에는 '치앙라이 한인교회'와 '영은장학숙'이 나란히 있다. 특히 영은장학숙은 아이들을 위한 숙소라서 좋은 자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건축비는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부족하게 되었다. 교인들은 합심해 기도하였다. 감사하게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 은퇴 장로, 권사, 집사와 예배자들의 헌금으로 선교센터를 완공해 헌당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족 아이들을 위한 숙소는 영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여 '영은장학숙', 즉 태국말로 "영원한 은혜의 숙소"라고 이름 지었다. 산족 아이들은 대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며, 어른들처럼 마약, 담배, 음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치앙라이 한인교회는 한국에서 여행을 왔던 사람들이나 은퇴하고 한 달에서 넉 달 동안 치앙라이 시내에 숙소를 얻어 생활하는 사람들, 혹은 겨울 동안 숙소를 빌려 지내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10~2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다가 3월이 되면 모두 귀국하여 매주 새로운 여행자 1~3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2. 치앙라이 한인교회 헌당예배



헌당 컷팅식

3월 9일 토요일 아침 9시, 교회에는 벌써 빠마이족 아이들이 20여 명 와있었다. 태국에서 산족들은 소수민족으로서, 태국인들은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님 품에서 잘 키워 태국 내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노석희&길영순 선교사의 바람이다.

헌당식에는 약 100여 명의 성도와 치앙마이에서 온 목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참석하였다. 헌당식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여 이승훈 장로와 윤금자 권사, 김웅 목사, 마을대표의 테이프 컷팅식이 있었다. 이어서 김웅 목사(치앙라이 노회)의 설교가 있었고, 노석희 목사가 건축 경과보고를 하였다. 빠마이족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성도 앞에서 축하 찬양을 하였다.

점심은 식당에 주문하여 밥과 여러 가지 음식이 배달되었고, 의자와 탁자까지 준비하였다. 한국에서와 똑같은 맛의 김치와 떡은 김웅 선교사의 사모가 제공하였다. 태국 성도들이 남은 김치를 기쁘게 나눠서 가지고 갔다. 참석자들은 식사하면서 교제했다. 그때 많은 선교사가 들려준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 애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인사하며 가는 환한 모습들이 헌당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였다.



도로에서 바라본 영은장학숙

영은장학숙은 모두 네 개의 방과 주방으로 건축되었으며,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다. 아이들이 많아 빨래가 마르지 않아 걱정하였는데, 산의 경사면을 정리하면서 생긴 자투리 면적에 빨래걸이를 마련하여 아이들이 세탁 후 빨래를 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 성전은 약 70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고, 방문자를 위한 쉼공간도 같이 있다. 지금까지 치앙라이에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는 선교의 길이었다.

4월 2일 시작된 〈화요 직장인 예배〉

4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영은교회 본당에서 첫 번째 〈화요 직장인 예배〉가 있었다.

11시 40분, 이찬양 목사님과 찬양팀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 이 시작됐다. 3층 본당 예배 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운데 두 줄 좌석만 사용하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3층 예배실이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주님의 은혜였다.

찬양팀의 찬양이 15분간 진행됐고, 김우권 장로님의 기도가 이어졌다. 이승구 담임목사님은 신명기 24장 22절을 토대로 "함께 세우는 일터, 보살핌"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목사님은 우리의 일터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보살핌'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상대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보살핌이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기원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2시 10분이었다. 30분간 드려진 예배에 약 120명 정도가 참여했다. 예배 후에는 참석자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식권을 건넸다. 7층 식당에서는 오찬의 시간이 있었다. 화요 직장인 예배마다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화요 직장인 예배〉는 화요 노방 전도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전도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고 거부하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직장인 예배' 를 구상하게



됐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동료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다. 2018년, 교회에 〈화요 직장인 예배〉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을 펼치기도 전에 코로나로 계획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전도부와 화요노방전도팀이 기도로 준비하며 세부계획을 세워 마침내 화요 직장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번 〈화요 직장인 예배〉를 위해 3월부터 전도부와 화요노방전도팀이 교회 주변의 지식산업센터들과 남부고용센터, 소규모 업체들을 찾아가 전단지와 초청장을 배부했다. 3월 29일 금요일에는 양평역 주변과 교회, 이앤씨 앞에서 캔커피와 초청장을 나눠주었다. 적극적인 홍보로 예배에 120여 명이 참석하게 됐다. 전도부 담당 정성훈 목사와 선교부 김우권 장로, 전도부 전호성 장로, 화요 직장인 예배 팀장 이숙영 권사, 총무 장진아 권사, 반주 김윤정 집사, 찬양팀, 그리고 전도부와 화요노방전도팀이 〈화요 직장인 예배〉를 위해 '원팀' 이 되었다.

〈글 : 김명희 기자〉



또 하나의 선교지 그리고 축복

글 | **종현덕** 목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할렐루야! 포항 구룡포에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2006년 영은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지난 17년 동안 영은교회 교역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중 10년은 말레이시아에서 살았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던 10년도 저는 언제나 영은교회 마크를 달고 선교를 했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간 것처럼 저는 영은교회 소속, 영은교회 파송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게 영은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들, 기쁘고 슬펐던 사건들, 또 행복하고 괴로웠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서 마치 밤하늘에 아로새긴 별들처럼 저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7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와 영은 가족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다양한 경험들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이천예배자 운동과 태신자 전도운동으로 영혼구원을 위해 함께 수고의 땀을 흘렸으며, 선교지에서는 매년 방문해 주었던 영은청년 비전선교팀과 또 김선봉(김치선교봉사단)과 함께 원주민 마을을 순회하며 어린이 전도와 원주민 문화사역들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영은 가족들의 쉼 없는 기도와 사랑의 열매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국에 돌아와 임지를 찾고 있을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돌봐주신 이승구 담임목사님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월 14일 이곳 구룡포까지 직접 방문하여 취임감사예배를 드려주셔서 다시한번 영은 가족들의 사랑에 큰 감명과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룡포 성광교회에서 종현덕 목사 올림

올백데이

– 2024 영은 혁신하다 –



올백데이

올백데이는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 전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식사 후에 친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교회 6개 교구가 하나 되는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월 21일 (주일) 오전 8:30 - 오후 4:30 | **KBS 아레나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시간표 (버스·프로그램)

영은교회 버스출발/ 오전 3회 — 8:00 | 8:40 | 9:20

전교인이 함께 하는 예배	8:30 ~ 9:40	**버스운행**/ 현장 **인생네컷, 커피차** 운영
	9:40 ~ 10:00	**여는 찬양**
	10:00 ~ 11:00	**예배**
축하 순서	11:00 ~ 11:10	**참석 내빈 소개 및 축사**
	11:10 ~ 11:30	**축가1** Ten. 신상근 교수/ **축가2** 리즌콰이어
친교	11:30 ~ 12:00	**경품 추첨** (교육1, 2부)
	12:00 ~ 14:00	**점심식사**/ 야외 **에어바운스** 운영
	14:00 ~ 16:00	**명랑운동회**
	16:00 ~ 16:30	**마무리 및 Celebration** (찬양팀 밴드)
	16:30 ~ 17:00	**정리 및 귀가**

KBS 아레나 버스출발/ 오후 2회 — 4:30 | 5:00

· 이동수단: 버스 이용 (6대 운행) · 주차: 당일 주차는 안내위원의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 4/21(주일)에는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와 모임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KBS 아레나홀로 오셔야 합니다.

영은교회

K국에서 온 편지

소망이 샘솟는 이야기

– 중앙아시아 K국 –

글 | **전우현 · 박영란** 선교사

편집자 주 : 선교지역의 특성 상 선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부 단어를 자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소망의 샘 이야기

저희가 현재 섬기고 있는 B시 소망의 샘은 지난 2012년 6월에 개척되었습니다. 당시 개척 멤버는 K시 출신 소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월세 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ㅈ님의 은혜로 인원이 많아져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던 중 B시 한인ㄱ회 ㅁ사님의 호의로 현재까지 그곳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장소를 빌려 모임을 가지다 보니 ㅈ일ㅇ배 및 그 후 ㅅ경 통독(약 두 시간) 외에는 장소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모임 후에 바로 다른 ㄱ회가 같은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ㅇ배 후 지체들과의 깊이 있는 교제 및 양육, 훈련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평일 역시 장소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매주 토요일에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일대일 모임을 갖고 있지만 그 모임 역시 한인ㄱ회 및 다른 단체의 모임이 있을 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3년 전부터 ㅈ님께서는 몇몇 지체들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 새ㅅ자 및 오랫동안 ㄱ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망의 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소망의 샘은 인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헌당 컷팅식



대학부 모임 후 자매들 식사교제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은 개인 ㅇ육 및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소는 자체 모임(ㅈ일ㅇ배 및

ㄱ도모임, 그리고 각종 소그룹 모임(ㅈ일학교 및 청소년, 청년모임 등)과 일대일 양육 등)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입 즉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경우 모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최소 12만 달러)이 있습니다. 또한 장소 구입 후 증, 개축을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이 경우 역시 건물 구입과 증 · 개축을 위해 대략 12만 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향후 설계 및 공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현재 네 자매가 거주하고 있는 '은영 학사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축 비용이 7만 달러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ㄱ회로서는학사관이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있어서 위치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B시 소망의 샘 재정은 현재 약 2,200불인데 ㄱ도하면서 건축을 위해 현지 지체들도 지속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작년 여름 이 곳을 방문한 한국의 한 원로 ㅁ사님과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분을 처음 뵈었는데 그 분을 통해 몇 가정에서5천만 원을 헌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의 불모지(K민족 복음화율 0.1%)인 이 곳에 눈물을 뿌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구입 즉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건물 12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약 4만 달러가 채워졌고, 앞으로 8만불이 더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후원해 주시고(5만원 1구좌) 계속적으로 ㄱ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곳에 온지 21년만에 처음으로 ㄱ도 편지에 후원 계좌를 올려 놓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부분의 ㄱ회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사(만나며 사랑하며)이야기

'만나며 사랑하며' (이하 만사)는 지역ㄱ회를 위한 ㅈ자훈련 초급과정 일대일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미국 메릴랜드 소재 빌립보 ㄱ회 송영선 ㅁ사님이 2004년 개발하셨습니다. 교재는 크게 ㅎ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재생산과 양육을 소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년 5월부터 '머슴ㄱ회' (송영선 저) 소그룹 모임 및 만사 세미나(11월), 그리고 만사 모임(일대일)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ㅈ자화사역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사례를 함께 나누며 매주 2회 만사 모임을 통해 일대일 ㅈ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사 모임의 일원으로서 금요일 아침에, 인도자로서 토요일 아침에 ㅈ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향후 두 명과 더 만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디 이 모임을 통해 ㅈ님이 원하시는 ㅈ자들이 훈련되고 그들을 통해 충성된 ㅈ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미나 중 소그룹 모임



세미나 후 단체사진

아산병원 팀과의 의료봉사

지난 2월 13일부터 3일간 아산병원 의료봉사단이 K시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의료진 4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K 시에 임시 치료시설을 마련하고 현지 주민 1,480명을 진료했습니다. K 시 소망의 샘 악사나는 산부인과, 누리아는 약국에서 통역을 했고, 저는 안과팀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아내와 최진희 선생님은 전체 식사와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아산병원팀은 ㅅ교팀은 아니지만, 믿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봉사를 오셨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쉴틈없는 시간들이었지만 보람있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진료 전 병원 앞 사람들



산부인과 통역을 맡은 악사나

지나온 길

- 일대일 양육 : 매주 월, 수, 토 대면 2회 및 비대면 5회
- ㅅ경 통독(창~삼하) : 매 ㅈ일ㅇ배 후, B시 소망의 샘
- K시 소망의 샘 방문 : 매월 셋째 주 토~일
- 일대일(만사, 온라인) : 12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08시:30-10:30
- ㅅ교 세미나(온라인) :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06:30-08:15
- 의료봉사(서울아산병원 주최) 통역 : 2월 13~15일, 카라콜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난 아니지만.

글 | **이숙경** 기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사가 그리 쉽지가 않다. 세상에는 진상이 많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내게 피해를 주는 이들도 너무 많다. 평생 잊히지 않을 정도로 미운 자도 물론 있다. 나는 화내기를 결코 더디 하지 않는, 아주 삐딱한 사람이니까.

누군가 어린 내게 말하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부 맡기면 마음이 평화로워질거라고 했다. 그 조언을 받자와, 그날 이후 나는 그놈들의 리스트를 적어 놓고 시간이 날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 놈들이 내게 이런 짓을 했으니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 주시옵고, 길을 가다가 제 발에 걸려 자빠지게 해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말아먹게 해 주시옵고……. 내게 조언해주신 분께서 원하신 기도는 이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마음만은 매우 홀가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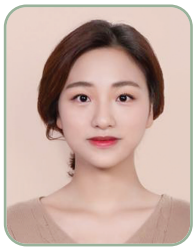
지금까지도 그들은 벼락을 맞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벼락을 맞을 정도의 나쁜 놈들은 아니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하나님께서 내 푸념을 '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말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을 빌어 저주하려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압의 왕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브돌의 발람에게 부탁을 한다. 발람이 하는 예언은 늘 백발백중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발람이 한 차례 거절했음에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크나큰 포상까지 걸며 그에게서 저주의 예언을 듣고자 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저주 대신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민 23:8)

인간의 얄팍한 미움과 사사로운 증오는, 천 년이 하루와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먼지처럼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도 그렇지 않던가. 어제의 분노나 슬픔이 나를 집어삼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십 년쯤 지나 돌아보면 죽을 만큼의 고통은 아니었던 적이 많지 않던가. 고작 십년의 시간으로도 무뎌지는 감정인데, 우리는 왜 그리 쉽게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시겠지만, 정작 나의 아집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다. 그것이 돌고 돌아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걸 알아도 말이다. 그 마음을 참을 필요는 없다. 그저 하나님께 다 아뢰자. 시시콜콜 고자질하자. 그리고 전부 맡겨 버리자. 그 답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다. 한 치 앞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이다.

녹색 제2계명 : 환경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글 | 장예은 (팀.초록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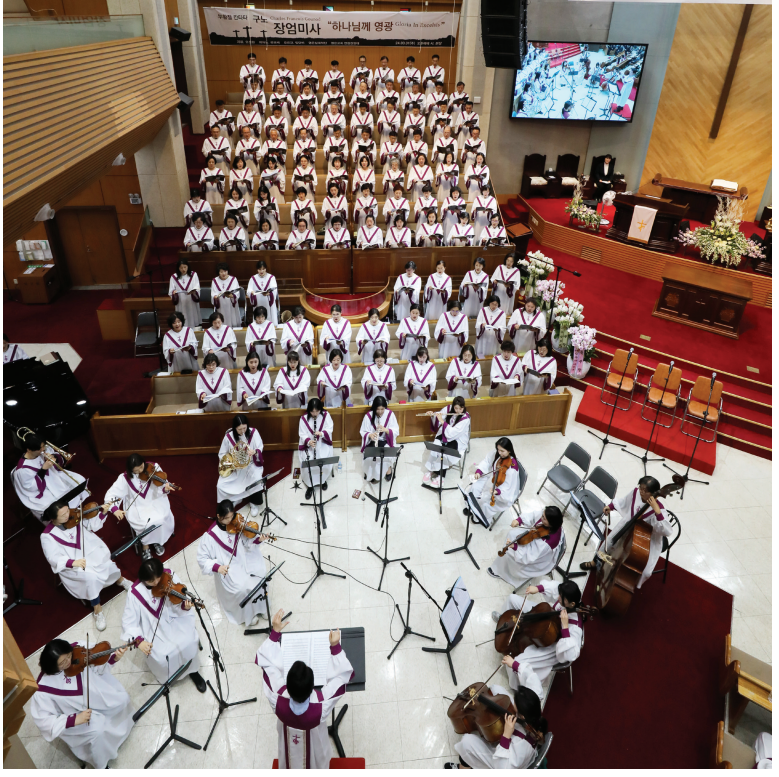
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화학제품을 사용한다. 깨끗이 지워지고 산뜻한 향이 나는 걸 보면 이런 생활 화학제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실상은 없어야지 더 잘 살 수 있다. 주방세제는 기름기 잔뜩 묻은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아무리 깨끗이 헹궈도 식기에 잔류 세제가 남는다. 완전히 닦아내려면 15초 이상 헹궈야 한다고 하는데 설거지가 많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주방세제에는 계면활성제를 넣어 살균, 세척의 효능을 더하는데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면역기능 저하와 점막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 1년에 소주잔 1~2잔 분량의 주방세제를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석유계 탄화수소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합성세제가 수질오염에도 큰 주범이라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사람과 환경 모두에게 해로운 화학제품을 대체 가능한 방법으로는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거나 EM 주방세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천연세제를 만들거나 샴푸 비누(샴푸 바), 트리트먼트 비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지만, 생태계에도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친다. 화학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 등의 화학 성분을 섞어서 만든다. 화학비료가 땅에 뿌려지고 농작물이 영양분을 얻지만, 이 과정에서 질소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까지 오염시킨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아산화질소의 1/4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업 활동에서 발생한다. 농약은 토양 속의 좋은 토양균을 죽이고 땅을 산성화시킨다. 농지 자체가 황폐화되어가니 농약과 화학비료의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유익한 미생물들이 전혀 살지 못하는 땅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게 되면 먹거리와 식재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간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부터가 유기농 농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있어야지 식량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식량 위기는 아프리카 기아의 이야기가 아니다. 곧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에, 미리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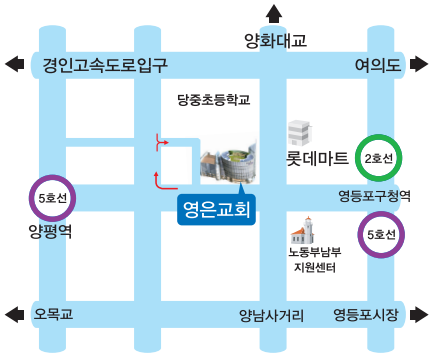


부활절 칸타타
구노
장엄미사
"하나님께 영광"
연합찬양대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조화평 정혜빈 김영락
김찬영 김회창
선 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선교협력목사 빅터 콱쿠 아데비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